

# 산·섬·갯벌·다리·음식 ... 낭만과 역사까지 관광자원으로

비약의 시작점에 선  
**새 천년 전남**

〈목 차〉

제 1부 성장 기반을 닦다  
제 2부 곳곳에 활력 샘솟다  
제 3부 미래 도약 나선다  
제 4부 지속성장 동력 갖추다

## 〈7〉 다양한 색채, 차별화된 전남 관광

전남 22개 시군에는 개개 특성을 담은 관광자원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1호 지리산, 월출산, 주작산 등에, 다도해를 품은 깨끗한 바다, 너른 갯벌, 긴 해안선이 있다. 전국 팔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남도 음식은 누구에게나 극찬을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이라. 밤이면 낭만이 내려앉은 여수 바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목포 원도섬, 담양의 죽녹원, 보성 차밭, 섬과 섬 그리고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연도교까지 남도 구석구석에 깔린 관광자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민선 7기 전남도가 관광산업을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짚고 나선 것은 이처럼 풍부한 자원 덕분이다.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일으켜 국내의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내여행이 국외 여행을 상당수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남 관광산업 발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0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관광산업이 전남 경제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스킷하루 머무는 전남 관광이 아닌 '체류형 전남 관광'이 되도록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천에 깔린 관광자원 여여 미래 산업으로= 관광산업에서 전남의 강점은 비교우위의 해양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 등이 우선 거론된다. 전국의 섬 3352개 가운데 전남에는 전체의 65%인 2165개가 쏠려 있다. 유인도 역시 전체 465개 중 272개(58.5%)가 전남에 있다. 단순히 섬 개수가 많은 것을 넘어 하나의 섬은 하나 이상의 개성과 이야기거리를 품고 있다.

최근 방영 중인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 세끼-어촌편' 무대는 완도 노화읍의 작은 섬, 죽골도다. TV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무대가 언제부터 남도의 이름 모를 작은 섬과 어촌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도 전남도 관광정책 담당자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해마다 봄꽃 필 무렵 완도 청산도에는 외지인으로 넘쳐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27만9000명에 이를 정도다.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광상품으로 아직 자리매김하지 못한 갯벌의 가능성도 무한하다. 2019년 기준 랍사르협회에 등록된 국내 랍사르 습지 23곳 가운데 5곳이 전남에 있다. 2005년 지정된 신안 장도 산지 습지, 순천만·보성갯벌(2006년 지정), 무안갯벌(2008년), 신안 증도 갯벌(2011년), 순천 동천 하구(2016년) 등이다. 전국 해안선의 45%인 6743km에 이르는 전남의 해안선 역시 곧 석처럼 빛을 발할 자원의 하나로 꼽힌다.

풍부한 해양자원과 문화유산

맛깔스런 남도음식  
2165개의 섬 수많은 이야기 품어

관광 인프라·쇼핑시설 확충 시급  
체류형 관광으로 소비 늘려야  
KTX·혁신공항·남해안철도 등 과제

이순신대교, 천사대교 등 연륙·연도교는 물자와 사람의 이동 편의 개선을 넘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 간 10개 섬, 11개 해상교량으로 연결한 39.1km 도로를 부르는 '백리섬섬길' 역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다. 지난해 9월 개장한 목포 해상케이블카, 체류형 관광지로 급부상한 진도 솔비지리조트 역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해 해양관광단지로 꾸미기로 한 여수 경도의 변신도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오는 2029년까지 경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6성급 호텔과 마리나(요트·유람선 정박지), 워터파크, 인공해변,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불교 문화유산도 곳곳에 숨 쉬고 있다.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이름난 사찰과 크고 작은 사찰은 물론 백제불교 최조도래지(무안)까지 불교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여행·관광 즐거움의 백미는 남도음식이다. 장흥 한우, 목포 갈치조림, 무안 나지요리, 곡성 흑돼지 요리, 나주 곱탕, 여수 꽃게·바닷장어 요리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마다 특산요릿집 등 맛집이 넘쳐난다.

여행 트렌드가 이전에는 '여행을 가서 맛집을 간다'였다면, 근래 들어 '맛집을 가려고 여행을 간다'로 바뀌는 경향도 전남에는 긍정적이다. 이 경우 맛집을 앞세운 남도 음식을 다른 관광자원과 자연스럽게 엮어내나가는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수익 증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주목된다.

◇과제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교통 접근성 개선=전남 관광산업이 새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 전남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보유한 관광자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광 인프라, 관광사업체 확충이 우선 거론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사업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남에는 여행업체 773개, 관광숙박업체 295개, 국제회의업체 6개, 유원시설업체 113개, 관광편의시설업체 388개가 있다. 여행업체는 전국 2만2115개의 3.4%, 국제회의업체는 전국 1061개의 0.5%에 그친다. 관광숙박업체는 전국 2243개의 13.1%에 해당하지만 영세 업체가 상당수다. 전남도 역시 2019년 1월 마련한 '전남 관광비전과 전략 보고서'에서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전남의 자랑거리인 섬 지역의 경우 크게 부족하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지출 확대를 위한 소품시설 부족도 문제다.

전남도는 역시 같은 보고서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품시설 부족과 안내체계 미흡"을 거론하면서 "사후면세점이 454곳 있으나, 선호 상품 부족과 교통편 안내 부족과 의사소통 능력 등 수용태세 미흡으로 이용이 저조하다"고 자성했다.

각종 규제에 의해 전남만의 자원을 적절한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도 난제로 꼽힌다. 혁신공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전남도는 혁신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혁신도까지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



용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순천만의 여름.

(순천시 제공)



완도군 노화읍 죽골도에서 촬영되는 tvN 삼시세끼 어촌편. (tvN 제공)



청산도는 이창준 원작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삭힌 홍어와 수육을 익힌 김치에 싸서 먹는 홍어삼합. (광주일보 자료사진)



섬진강 재첩국.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로 단축돼 주민과 이용객의 교통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혁신공항을 디딤돌 삼아 혁신도가 동북아 생태관광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혁신공항 건설 사업은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3차례에 걸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가로막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철새 보호 대책과 국립공원 가치 훼손, 안전성 등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순천·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과 목포·신안 등 서부권의 관광 인프라 차이를 우려하

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광자원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전후로 동부권에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여행사·컨벤션센터 등 관광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면서 동부권으로 관광객이 쏠리고, 상대적으로 서부권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국민 여행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고 있으나 이들의 소비 지출은 11만1000원(1회 평균 지출 비용)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제주 46만8000원, 강원 17만9000원, 부산 13만7000원이다. 광주 역

시 10만5000원에 그친다. 단 하루 스킷하루 머무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전남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년 나아지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 개선 역시 매년 과제로 지목된다.

무안공항을 거치는 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2025년 완공)의 조기 완공, 혁신공항 착공, 남해안철도(2023년 완공), 전라선(익산-여수) KTX 증편 및 수서발 KTX 투입 등 접근성 개선은 민선 7기 전남도가 안고 있는 과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 순천·여수·담양 '핫 플레이스' ... 전남 관광객 연 6000만명 넘어섰다

순천만 하루 평균 1만6900여명  
여수 해양엑스포공원·오동도 인기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000만명을 넘어섰다.

7703만명의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관광 전남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민선 7기 도정 목표였던 '연 관광객 6000만명' 조기 달성을 견인한 전남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였을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문체부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는 625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2018년보다 무려 1182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문체부 관광통계에 따

르면 지난 한 해 전남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린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순천만 습지였다. 1인당 최고 8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이곳에는 지난 1년간 모두 617만9697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6900여명이 다녀간 셈이다.

다음이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이다. 지난 1년간 362만7470명이 방문했다. 여수 오동도가 입장객 3위, 광양 청매실농원이 4위, 돌산공원(해상케이블카 등)이 5위를 차지했다.

입장객 수는 오동도 290만8000여명, 청매실농원 249만8000여명, 돌산공원 166만6000여명이었다.

입장객 6위는 담양군 메타프로방스(116만8000여명), 7위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 마을(96만5000여명), 8위는 담양군 죽녹원(90만1000여명), 9위 광양시 백운산등산로(85만1000여명), 10위는 영

광군 불갑사 관광지(84만6000여명)로 나타났다.

목포에서는 춤추는 바다분수(70만여명), 목포자연사박물관(46만여명), 노을전망대(41만여명),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29만여명)을 찾는 관광객이 많았다. 여수에서는 아쿠아플라넷 여수(78만여명), 향일암(76만여명), 유람선(오동도 코스 54만여명), 디오션워터파크(33만여명)에 관광객이 줄을 섰다.

순천에서는 드라마촬영장(75만여명), 선암사(30만여명), 송광사(19만여명), 파인힐스 골프장(22만여명),레이크힐스골프장(16만여명)이 핫플레이스로 꼽혔다.

나주에서는 빛가람전망대(29만여명), 국립나주박물관(24만여명), 중흥골드스파(22만여명), 곡성에서는 섬진강 기차마을(66만여명)을 많이 찾았

다. 구례에서는 국립공원 지리산 화엄사(51만여명), 노고단(50만여명), 천은사(49만여명), 고흥에서는 소록도(한센인 박물관 58만여명), 녹동항 인공섬(35만여명), 나로우주과학관(11만여명)이 주목받았다.

보성에서는 한국차박물관(33만여명), 울포해수욕장(24만여명), 대한다원(23만여명), 제암산휴양림(14만여명), 화순에서는 무등산국립공원 만연사(32만여명), 금호화순리조트(31만여명)가 인기였다. 장흥에서는 편백숲 우드랜드(46만여명), 강진에서는 가우도(52만여명), 다산초당(35만여명), 해남에서는 두륜산 케이블카(25만여명), 대흥사(23만여명), 땅굴 관광지(14만여명), 영암에서는 월출산국립공원(천황사 30만여명)이 입장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